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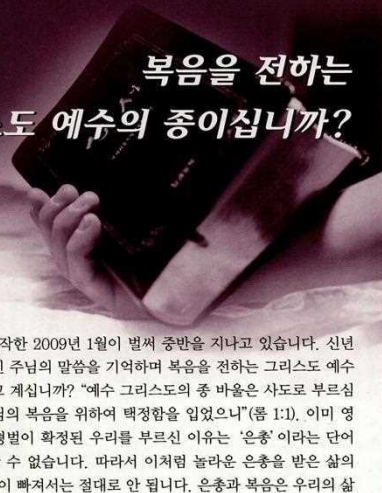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영환 편집: 오성태

주님의 부르심, 믿음의 순종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2009년 1월이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년 예배 시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롬 1:1). 이미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확정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은혜'이라는 단어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삶의 목표에 '복음'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총과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행언할 수 없는 은총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거나 늦을 수 없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 하되, 예배 시작 15분 전에는 반드시 예배당에 착석하여 신령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롬 12:1). 그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어서 매일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 금요찬양집회에 꼭 나오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딤후 2:15).

참 성도들만이 복음을 위해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의 계획에 맞추어 주님의 사역들을 조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역에 나의 계획과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다들어서 매일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 금요찬양집회에 꼭 나오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주일(25일)은 선교주일입니다

복음적인 설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매순간 깨어있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리 귀향하시는 성도님들은 설날가정 예배 모본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며 가급적이면 주일을 성수한 뒤 귀향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날가정예배 모본은 본지 7면 참조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마서 1:1~4)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칭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서 부를 때에 그 뜻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분이사라는 뜻이다(마 1:1).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세계 즉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마 13:11; 창 12:3; 행 2:30). 바울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주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의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가는 시대에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종이 되었음이 그의 실존이 되었다. 바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된 것이다(빌 2:9).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종, 택정함을 받았다(갈 1:15).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 즉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택정하셨다(롬 1:1).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다(롬 1:2). 약속으로 구약 안에 있었던 복음이 이루어져 실존적인 실체가 되었다. 구약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성자 하나님이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전제 하고 있다(고전 15:3; 행 13:32).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롬 1:3~4).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또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말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행하신 일들을 말한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오신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성경의 영을 따라서 더 크고 높은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다. 이 사실은 그의 부활로 그에게 확정되었다(빌 2:6~9). 처음에 가리어졌던 그의 신성한 영광은 부활 후에 나타났다.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고 계심을 전하였다(엡 1:19~21).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일인가를 외쳤다(엡 1:22~23). 로마서 서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함으로써 이 역사적인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 사실임을 밝힌 것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렸다(고전 15:51~53, 57~58; 요 5:2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다(고전 15:21~22).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만 국한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몸이 되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고전 15:20). 진실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죽음의 세상과 산 자의 세상을 구별하여 주는 분기점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과 생명의 시대가 인류에게 시작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이해하는 복음의 골짜기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함으로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로운 세대의 기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바울은 육과 영을 구별한다(롬 1:4).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은 인간에게 있는 육신적인 것, 영은 영적, 영육적인 것이요, 영은 인간 안에 있는 육보다 높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로 구별한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하는 육과 영은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이다. 육은 인간 전체를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이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고자 하는 전부를 포함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후 3:17). 그러므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으로는 인류에게 속하였고 이 세상에 임하였다. 그러나 영으로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새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다. 복음은 이 사실에 모든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다.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Lord)이다.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부르심, 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만민이 믿어 그에게 순종하게 하는 은총의 직분이다. 아멘.

UNASHAMEDNESS OF THE GOSPEL

⁽¹⁶⁾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¹⁷⁾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omans 1:16~17)

In today's Bible verses Paul confessed that he was not embarrassed nor did he feel the need to apologize about the gospel. Before he met Jesus, he was very ashamed. In fact, he hated the gospel because he thought it went against Moses' Law. His dislike was so strong that he helped kill Stephen and persecuted many Christians. After he met Jesus on the road to Damascus, his viewpoint completely changed. What did he learn that was so different from what he previously knew?

Paul learned that the gospel, the good news, is from God Himself. It wasn't something that man made up. It wasn't a new craze that one of his colleagues or synagogue members created. Jesus came to this earth from heaven and became human. He fulfilled all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concerning His birth, death, and resurrection. Paul said, "But by His doing you are in Christ Jesus, who became to us wisdom from God, and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1Cor. 1:30). God planned and performed the giving of His grace and mercy. Romans 11:33~34 say, "Oh, the depth of the riches both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are His judgments and unfathomable His ways! For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or who became His counselor?" If you believe God's good news, then you will receive all the amazing blessings that come with it. Becoming a Christian in today's world means that you will experience shame from unbelievers. You might not be accepted in some social circles, some people may treat you badly, you may lose your job, and you may even be hated by neighbors and colleagues. Like Paul, Peter also learned that the good news came from God. He confessed, "In all this, they are surprised that you do not run with them into the same excesses of dissipation, and they malign you; but they will give account to Him who is read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1Pet. 4:4~5). Knowing that the gospel comes from God Himself makes Christians unashamed.

Paul learned that the gospel, the good news, is the power of God to save all believers,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Rom. 1:16). The gospel was not designed by God to make you feel good or look good. It is not the secret to earthly success or fame. When you believe in the gospel there is power to save you. Salvation is all about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It solves your death problem. It changes you into a child of God. Salvation is for all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Rom. 10:12~13). Jesus said, "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said, 'From his innermost being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n. 7:38). God's desire is for all humans

to be saved, "who desire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1Tim. 2:4). Truthfully, there are no words or expressions that can really describe just how powerful the gospel is. This great gospel is offered by Jesus freely,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Rev. 22:17). All you can do is accept it.

Paul learned that the gospel, the good news, is the revelation of God's righteousness,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om. 1:17). God revealed His mighty righteousness in the gospel. All humans are born with a serious problem. That problem is sin. Those who come to the Lord with their own goodness, effort, and righteousness cannot receive the gospel. Even within the church there are people who wrongly think that if they live a good life, do little harm to others, and practice what they think is good that they will somehow find favor with God and receive His grace. Jesus clearly said, "For I say to you that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e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t. 5:20). He also said,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Mt. 5:48). Honestly, do you know of anyone that can be like that? No human being can succeed on their own to such standards. God provided a way! His way not only reveals His righteousness, but imparts it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Cor. 5:21). This is the secret of heaven. This is the good news. This is the gospel that can make us righteous in front of God. The solution to the human problem is faith. Whoever believes in Jesus will find salvation, "and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freed from all things, from which you could not be freed through the Law of Moses" (Acts 13:39). Romans 3:28 clarifies, "For we maintain that a man is justified by faith apart from works of the Law." The Law of Moses was like a disciplinarian, but Jesus Christ is the real teacher, "Therefore the Law has become our tutor to lead us to Christ,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Gal. 3:24).

My dear friend, Paul learned three very important concepts about the gospel, which is why he was not ashamed of it. If you know that the gospel comes from God,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and that it reveals God's great righteousness, then your faith will be strengthened to face the trials and tribulations of everyday living. Do you believe in the gospel like that? Truly everyone who does is extremely blessed. The gospel brings life and is the most praiseworthy news anyone can receive. I hope you take full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given to you to share this wonderful message. Amen. ■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¹⁶⁾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¹⁷⁾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6~17)



김성관 목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난처해 하거나 변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복음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실 복음을 증오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복음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했던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데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었으며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무엇이 그토록 달랐던 것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울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그의 동료나 회당의 회원들이 만들어 낸 새로운 통행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 부활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1:33~34에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사자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와 함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 모임에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일차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웃 사람들이나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 역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벧전 4:4~5). 복음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이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복음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나 고안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얻는 비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 모든 사람의 수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2~13).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8).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 솔직히 말하면 어떤 말이나 표현으로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 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하나님은 복음에 당신의 놀라운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원죄입니다. 자신의 선과 노력, 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조차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이처럼 온전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입혀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행 13:39). 로마서 3:28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모세의 율법이 엄격한 교사와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생이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 3:24).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관해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날마다 삶에서 부딪히는 시험과 고난을 능히 맞서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 사실들을 믿습니까? 진실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은 참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최고의 찬양을 받아 마땅한 소식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1. 14.)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요한복음 14:1~3)



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확실성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증언하였다.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감람이 가까우니라"(약 5:8). 한때 야고보는 자신의 친형인 예수님의 행동을 기이하게 여겼다. 그러나 성경의 은사로 완전히 변화된 뒤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 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약 1:1). 해로워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는 예루살렘에서 영적 부흥을 주도하였다.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인 유다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유다도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유 1:20~21). 예수님을 가장 알고 있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많은 실수를 범하였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에도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었다.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요 21:5~17).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으며 재림을 확신하였다. "그러하면 목자요니 나보다 먼저 사탄이 너희를 팔을 줄지 모르리라"(벧전 5:4).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낸 편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살전 4:16~18).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어 고독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였음에도 재림을 확신하며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독려했다(요일 3:2~3).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천사들의 말대로 우리는 하늘로 가겠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것이다(행 1:11).

그가 오실 표적 감람산에서 쉬시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질문하였다(마 24:3). 이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

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신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4~5, 11, 2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구체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일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눅 21:25~26). 예수님은 바로 그 때에 자신이 구원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21:27). 동시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표적이 보일 때 성도의 할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셨다. "일어나 머리를 드러 너희 속란이 가까웠느니라"(눅 21:28).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때로는 달콤한 유흥으로 믿음을 흔들 것이며 때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침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머리를 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자. 거룩한 척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자(딤후 3:13).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무시하며 세상의 것들을 성경과 조화시키는 악한 일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게할수록 속지 말자.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성령에 각인하고, 복음을 전하자(딤후 4:1~2).

영속하게 오실 것이다 영속하게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5:10~11에서 영속의 의미는 묻이 닫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4:38~39에서 영속의 의미는 모두 멸망한다. 것이다. 누가복음 12:20에서 영속의 의미는 영원에 관습이 있다는 것이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묻이 닫혀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자.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부와 명예,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악한 모습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자.

갑자기 오실 것이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이다. 지구의 한 편에서는 사람들이 낮에, 또 다른 편에서 사는 사람들은 밤에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마 24:40~41).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 24:42).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마 24:27). 절대로 영적으로 출가나 잠들어서는 안 된다(막 13:36).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은 절대로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양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영속하게 오실 것임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가증스러운 세상의 것들에 취해있지 않은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강해 64

* 매우 힘든새벽기도(새벽 4:45)까지,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한 부자

(10:17~31)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마 10:17).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 매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마 10:18)라고 대답하셨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대답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니와 계명을 지키라"(마 19:17).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계명을 지키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는 첫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마 1:14)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자체로 오셨다.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질문자의 악한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당시 율법에 정통한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 호심탐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며 시험하였다(눅 10:25~26).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의 질문을 던진 사람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는 당당하게 대답하였다(마 10:19~20).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데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가사 네게 있는 것을 다 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마 10:21).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요구는 순종하기 힘든 문제였다. 결국 그는 아무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갔다(마 10:22).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은 부자였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의 문제를 포기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아온 것을 사람으로 대하셨고 질문의 답을 주셨지만 이 은총의 초청을 그 부자는 거부하였다. 분명 이 부자는 계명을 잘 지켰었던 훌륭한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켰을 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은 데에 있다.

한 부자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믿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0:15). 부자에게는 어린 아이의 단순함과 순수함이 없었다. 단지 재물을 모으듯이 자신이 원하는 영생 얻기를 원했다.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핵심은 몰랐다. 자신의 현실이 중요할 뿐이었다. 결국 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마 10:25). 이와 같이 현실은 매순간 신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수제자 베드로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큰 소리쳤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마 10:28, 1:29).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율법을 지키면 피지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마 10:27).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마 10:29~30). 오랜 신앙경험과 성경에 대한 박식함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마 10:3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은총의 자리로 초청한다. 마가(행 16:15), 보비(행 16:1~2), 브리스가와 아굴라(롬 16:3~5), 에라스모와 쿠아도(롬 16:23)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자. 아멘.

계명을 모두 지기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네게 아직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손길



강한 유교적 가풍에서 성장한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한다. 하교길에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다가 열려 있는 교회 문으로 들어가 보니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이끌려 간 곳이 바로 교회 부속 유치원이었다. 마침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 유치원생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셨다. 집에 돌아와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마음이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후 초등학교 내내 교회에 다니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중학교 때 가톨릭 신자였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교회는 절대 안 된다.는 부모님과파의 타협으로 나는 그 친구를 따라 성당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대학 입학 후 한 친구가 내게 예수님을 전했다. 가톨릭이 기독교라는 생각으로 꼭 들어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와 가톨릭의 미묘하고도 경계야 불분명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다.

취업과 결혼을 하면서 다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 중현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지만 겨우 교회 마당만 밟는 성도였다. 주님은 이런 나를 그대로 놔 두지 않으셨다. 십 년 전 일이다. 시택 본가에서 지내던 살날 차례를 일직일로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미지근한 민음을 가지고 있던 내게 성령님은 구역장을 통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일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필박을 많이 받았지만 이후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돌아보건대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

2000년에는 건강하시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성경책을 가방에 넣었다 뒀다 몇 번이나 반복했다. 믿지 않는 아버님의 병상에 성경을 가져갈 용기가 없어 결국 성경책을 두고 갔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님을 보니 마음이 다급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용기가 없었다. 어떻게 구한 성경책을 들고 다시 병실로 가서 아버님을 보았다. 중환자실 상황상 조용히 찬송하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을 했다. 나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다 동원해 아버님께 예수님을 전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날 자정 무렵,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투를 발하시던 아버님은 평안한 모습으로 꿈꾸듯이 떠나셨다.

이후 나는 구역장 직분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하려 했다. 수요예배, 구역장 영성훈련, 구역예배, 금요일양심회, 주일예배, 교구모임 등등 주일에 교회 마당만 밟던 내겐 너무나 벅창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하러니 힘에 겨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복음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깊이 만나주셨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는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셨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을 차례로 내려놓게 하셨다. “아,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구나.”라고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그간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전하며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김기범(집사, 5교구)

십자가 보화로

저는 대학부에서, 준비한 ‘고3을 위한 여는 마음’ 전날부터 굉장히 기대하며 동기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집이 먼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것이 걱정이자 집을 미리 챙겨 와서 교회 근처의 친구 집에서 묵었다는 마음으로 출발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집이 교회 근처인 저는 평일에 친구들을 거의 볼 수 없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들과 들른 마음으로 여는 마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얼마나 환영해 줄까?’ 또 말로만 들던 대학부 선배들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었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들떠서 매우 늦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간에 쫓겨 할레렐때 도착해 보니 친구들이 거의 다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며 정말 부끄러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 회개했고, 이런 게이트 저를 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졸림과 피곤한 대신 다시 여는 마당에 대한 소망과 설렘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작은 여름에 왔었지만 대입이라는 큰 산을 넘어온 탓인지 중현교회에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늦게라도 들어오는 지체들도 있었고 그들을 보며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어찌나 아끼고 챙겨주는지,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충직한 말씀을 가슴에 꽂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질그릇이 되라고 말입니다. 저는 황급으로 만든 그릇, 보석이 박힌 그릇이 되어야 주님을 빛내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성공해야 주님도 빛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많이 타협하며 저의 그릇을 치장하는 데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만한 마음이 들고, 모든 걸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는 마당을 통해서 제 그릇을 빛나게 치장해야 주님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질그릇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십자가 보화로 저를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작은 성공을 위해서 저를 참된 성공의 길인 영성으로 이끌어 주신, 저를 위해 몸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저 혼자 하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슴 아파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팀원들과 기도를 하며 회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앞에선 항상 낮아지고 열여섯은 아기의 모습인데, 어른처럼 혼자 하려고 했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니...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새해에는 교만함을 버리고 질그릇이 되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 더욱 빛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화로 빛나는 자의 모든 대학부 지체 되게 하소서!”

김태민(대학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통하여 매주 받는 주님의 은혜는 날로 새롭다. 초고만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아이들의 신앙고백이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라고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요.”라고 아이들은 각자의 믿음대로 자신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였다. 이렇게 맑고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나를 초동부교사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은 주일마다 설교시간에 말씀을 듣고, 공과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을 배운다. 교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교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그럴 것이다. 그러한 내가 아이들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며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교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사가 되기 해 달라고 기도한다.

주께서 나를 초동부 교사로 부르심에는 분명 귀하고 소중한 어린 영혼들을 만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그 어린 양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끔 부르셨으리라! 정말 교사의 직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 씨 뿌리는 자, 풀 주는 자의 역할을 할 뿐, 우리에게는 주는 자는 역시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키가 자라듯 신앙도 쑥쑥 자라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백수현(교사, 초동부)

2009년 단기선교를 위한 첫걸음



2009년 단기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중언들은 볼라 필렛을 갖 보인 청소년들이다.
지난 몇 달간 십자가만을 붙들며 한 영혼구원을 위해 준비한 그들이
온전한 십자가의 중언이 되도록 기도하자.

- ✧ 선교지의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세요. **변다은**
- ✧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임희진**
- ✧ 처음 가는 선교인만큼 철저하 준비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한웅**
- ✧ 예수님께 칭찬받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진숙**
- ✧ 세 번째 가는 선교지만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2009년 강화된 심사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기도하여 선교하겠습니다. **조아라**
- ✧ 선교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도 기도도 팀원들과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정은혜**
- ✧ 주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가 빛을 잃고 모든 일정에 평화와 감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달영(교사, 서기)**
- ✧ 중등부 친구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남지혜(교사, 회계)**
- ✧ 선교지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정연(교사, 총무)**
- ✧ 먼저 2009년 첫 팀으로 파송 받게 되어 교회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한 종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임병준(교사, 담장)**

중등2부 2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선교팀이 구성되면 각 팀원들이 영성훈련과 팀훈련에 들어간다. 선교를 가는 팀들은 영성훈련, 팀훈련, 언어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은 특별히 부담이 되지 않으나 1인 1명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전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팀에 지원하면서 처음 가지는 생각은 '주님께서 나를 선교에 보내시려면 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도가 잘 되지 않았다. 선교 갈 시간은 다가오는데 여기저기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전도대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기도하고 권해 보았지만 안됐다.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성경책과 <주간총원>을 들고 교회주변에서 전도대상을 찾았다. 모태신앙이었다는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젊은 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에 나온다는 확답은 받아내지 못하였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나는 낙심하였다. '이대로 선교는 갈 수 없는 것인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요 15:7)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옛 직장동료자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 친구에게 회화를 소개하였고, 그 친구는 흔쾌히 교회에 나와 새가족부에 등록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느꼈다.

정중현(인문집사, 23교구 2지역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9일(월)~1월 24일(토)	중등2부 2팀	임병준

정지기칼럼



십자가는 나의 전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예비 장인어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버님은 나에게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한국과 자국만 말씀하시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 해요." 하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예."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와 직장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운명이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시 40:2). 주님께서서는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직장기숙사에서 승진시험공부에 몰두하던 어느 공휴일, 파리 한 마리가 창틀 머리 위를 날며 방해했습니다. 일어나 잡으려면 천정으로 날아 몇 차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 보니, 공부방 아래 보일러실이 온통 새까만 벽이요 이글거리는 시멘트 불덩이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재빨리 조치하여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파리 한 마리를 통하여 생명을 건져 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땀이 된 고속도로에서 30미터를 미끄러지며 차선을 넘나들 때에도 주님은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안동, 광주, 광주로 나그네처럼 직장 옮겨질 때마다 세상을 타지 않게 하고 새벽기도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주님은 직장선교회를 섬기게 하였고, 믿음의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직장생활은 저에게 외로운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솔직히 애 어울리지 않는 저에게 "조직생활을 그렇게 해도 돼요? 교회에 다녀도 잘 먹던데..." 하는 소리가 종종 들렸습니다. 두 세계 가운데서 세상과 잘 어울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을 때 저는 더욱 외로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골 3:2~3). 아직도 내가 죽지 아니한 죄인 중에 과수원을 고백하게 하였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라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시간만 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찬송만 불러도, 찬양대의 찬양을 듣기만 해도 심령이 울립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시 57:7). 은총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려. 나의 생활의 전부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직장도 나의 목장이 되어갑시다. 내가 하늘에 속하였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진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최경호
(인문집사, 집사회부회장)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가?

(마가복음 8:34~37)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소중함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을 가꾸는 데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가 돋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집을 꾸미는 데도 대단한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막 10:23~25).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영혼에 있습니다(막 10:45).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막 10:34~36). 부, 권력, 성공을 좇는 것은 헛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조금 있으면 썩어 없어지고 만다(전 1:2, 14, 2:11).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7~8).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심자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심자의 가치는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때때로 밀려드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는 심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자가를 참으셨습니다(사 53:5~6).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결코 치를 수 없는 대가

설날가정에 배

- ◆ 찬 송 94장 다 합 계
- ◆ 시도신경 다 합 계
- ◆ 찬 송 292장 다 합 계
- ◆ 말씀신포 막 8:34~37 설 교 자
- ◆ 통성기도 다 합 계
- ◆ 찬 송 341장 다 합 계
- ◆ 주기도문 다 합 계

를 지불하셨습니까(요 3:16).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이 놀라운 영혼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눅 23:42). 강도는 마지막 순간 영원 앞에서 정죄받았습니다(눅 23:43).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정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한 세계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곳이고, 다른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한 세계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다른 세계는 영원합니다. 한 세계는 현실이지만, 다른 세계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 세계는 끝나고 있지만 다른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모순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곧 시간의 제약 받는 세계에 친숙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 가치들은 쉽게 이 세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변함없이 영원의 세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시간을 쓴다면 영원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그 결과와 비참한 종말이 됩니다(약 1:11, 4:14).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앞에 두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눅 12:19~20, 16:24, 31). 이 둘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6:23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혼에 관한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존심과 혼란한 이 세상이라는 뜻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6	이도환	4 중동3부 박종현(4)	103	김진순	5 유년부 7(인회)(5)		
87	이주영	21 대학부 김예은(21)	104	노정숙	16 장년1부 송광주(16)		
88	이정재	16 장년2부 안병현(16)	105	임정숙	9 청년2부		
91	이슬기	16 대학부 이연숙(16)	106	박근영	1 장년4부 김은철(21)		
90	박민희	6 장년1부 김두순(6)	107	강재영	1 청년1부		
91	정미선	13 장년1부	108	최정순	4 청년1부 황 철(14)		
92	현문은	5 장년2부 황병자(4)	109	최정진	17 장년1부 김선자(16)		
93	김승환	15 장년2부 이숙희(15)	110	허 준	11 청년1부 김종권(14)		
94	서정진	20 장년2부 김중기(14)	111	고요영	25 외선부 김석영(7)		
95	강상구	16 장년1부 김재학(16)	112	디 엠	25 외선부 조영구(9)		
96	박인희	11 장년1부 박희숙(20)	113	송남근	23 장년1부 이승원(24)		
97	대규희	14 장년2부 박정혜(13)	114	최혜진	6 장년2부 송기원(6)		
98	정봉길	12 장년2부 정봉성(4)	115	김경혜	18 청년1부		
99	박필나	12 장년2부 임태수(4)	116	임배근	6 대학부 백민지(6)		
100	박한식	21 청년1부	117	조영주	22 대학부 고다현(21)		
101	박준병	8 장년부 김경순(8)	118	최후원	17 대학부 김지혜(2)		
102	김경애	5 청년1부 이연희(5)	119	유수현	15 청년1부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어울림, 루디아란



저는 지금 대학부 조장과 중동2부에서 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서에서 여름과 겨울수련회를 할 때마다 항상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학 때가 되면 기도원에 적어도 두세 차례는 가게 됩니다. 수련회 때면 부흥회를 뜨겁게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좋고, 작정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또한 공동체훈련이나 다른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수련회 때만 특별히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훈련기도원 내에 루디아란이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부 리더수련회와 '3교를 위한 여는 마당'이 올해 완공된 루디아란에서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루디아란은 수백 명이 되는 대학부 지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겨울에는 취위서 실외에서 할 수 없었던 공동체훈련과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꽤 멋진 공간에서 이루어진 공동체훈련과 체육활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 이상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부 겨울수련회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의 겨울수련회가 루디아란에서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영적 은혜뿐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 선생님, 학생들과 공동체훈련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잘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우(대학부)

